

농어촌공사 담양,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

✎ 김육봉(=호남) 기자 | ☎ 승인 2025.05.15 16:49



[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]

[폴리뉴스 김육봉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양지사가 최근 관내 월산2저수지에서 '저수지 비상대처훈련'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월류 및 사면 유실, 붕괴 등의 가상상황을 설정하고 임의적으로 단계별 상황(▲주의 ▲경계 ▲심각 ▲종료단계)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.

전 직원은 비상대처계획(EAP)을 토대로 ▲상황반 ▲대책반 ▲복구반 ▲지원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임무를 사전 숙지하여 본 훈련에 임했다.

김건경 담양지사장은 “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·재난 위험이 커져가는 만큼, 실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,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사의 비상대응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실전적인 비상대응체계 및 훈련을 통해 안전한 농어촌, 신뢰받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